

지역 매 아리

완주군, 7월 재산세 57억 부과

완주군이 주택,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에게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7억 1000만원 부과했다.

완주군은 주택,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에게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7억 1000만원 부과했으며, 개별주택가격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 등으로 2017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단, 주택 재산세의 경우 올해 연납기준 금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돼 분세를 기준으로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공과금 및 현금인출기(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본인명의 또는 타인명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완주군청, 읍·면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를 납부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나 ARS시스템(1588-2561), 가상(전용)계좌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시 3%가산금이 부과된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숲가꾸기사업 완료

김제시가 지역내 산림 240ha를 대상으로 숲의 생태적 건강성과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자 숲가꾸기사업을 완료하고 우수한 목재생산이 가능한 산림토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숲가꾸기사업은 인공조림지나 천연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솎아베기 및 가지치기 등을 하는 사업이며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금산면, 금구면을 중심으로 크나무 가꾸기 200ha, 어린나무 가꾸기 40ha 등 총 240ha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특히 이번 숲가꾸기사업 대상지 중 모악산도립공원 등산로 주변에 작업을 진행하여 불량수목을 제거하고 임내정리를 통해 등산객에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하여 숲가꾸기에 대한 시민 호응과 홍보효과도 거두었다. 또한 숲가꾸기로 발생되는 산물에 대하여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선발운영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 땀감활용 등 다양한 효과도 나타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숲가꾸기사업을 통해 녹색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감축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고, 우량한 목재생산으로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산림일자리발전소 예비경영체 모집

완주군, 내달 24일까지 신청접수

2018년도 산림청 일자리발전소 운영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완주군이 지역에 특화된 산림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주민이 주체가 되는 산림분야 예비경영체를 발굴·육성한다.

11일 완주군에 따르면 산림일자리발전소는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올해부터 역점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다.

지역 내 잠재된 다양한 산림자원으로 소득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같은 경영체를 발굴해 최장 5년간 단계별 성장을 지원한다.

완주군을 포함 전국 5개 시범지자체에서 25개 내외 예비경영체를 선발해 견학, 교육훈련, 멘토링, 사업계획, 마케팅, 홍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은 내달 24일까지 서류, 현장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앞서 산림일자리발전소는 예비경영체가 지원을 위한 지역별 그루매니저를 지난 4월 선발 완료해 현재 지역별 활동 중으로 자세한 안내 및 접수 지원은 지역별 그루매니저(완주군 그루매니저 noter365@daum.net)를 통해

서도 가능하다. 사업이해와 참여를 돕기 위해 완주군에서는 이달 중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예비경영체 모집공고자료는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완주군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신호 산림축산과장은 "완주군에 애착을 가지고 산림형 지역일자리 선도를 예비경영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 완주군에서는 산림일자리발전소(그루매니저)와 함께 임업분야 부가가치 창출 및 마을단위 산림소득을 견인할 경영체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비전 제시

시, 2018년 읍면동 시정설명회 개최

김제시는 11일 만경읍, 청하면과 공덕면을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7일간 19개 읍면동에서 민선7기 시정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시정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정의로 경제도약 하는 김제’의 추

진동력 마련을 위해 시민들에게 ‘인사정의 7.0’과 ‘투자 승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재정 투입’, ‘365일 소통·현장행정 강화’ 등 시정3대 원칙을 설명하고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정의롭게, 한결같이, 시민

결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민선7기 발전 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 창출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이번 시정설명회를 통해 김제시의 비전을 시민과 함께 나누고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구인구직 만남의 날 성황

6개 기업 참여... 구직자 200여명 몰려

완주군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34명의 취업을 이끌었다.

완주군은 11일 완주군청 1층 문화강화실에서 ‘완주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와 공동으로 2018년 제3분

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날 만남의 날 행사에는 6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제조·생산직 분야에서 200여명의 구직자가 면접을 진행했

다. 그 결과 최종 34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회사별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부품 생산 분야가 3개사 25명, 제조·생산직 분야 1개사 3명, 금형제조업 3명, 반도체 조립 생산직 3명으로 총 34명이다.

행사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김모씨(46.여)는 "결혼 전 섬유봉제공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7년 만에 재취업에 성공하게 됐다"며 "많은 경력단절 여성에게 오늘과 같은 좋은 취업기회가 제공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민선7기는 15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신규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및 기업 유지를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며 "이와 함께 임주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의 안정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오늘과 같은 실효성 있는 소규모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과 완주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는 이번 만남의 날 행사 공동 개최를 계기로 매분기 취업지원 행사를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완주군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34명의 취업을 이끌었다.



김제시 교월동의 아동수당 사전신청률이 접수 3주 만에 80%를 넘어섰다.

교월동 아동수당 사전신청률 80%

미 신청가구 적극 홍보

김제시 교월동(동장 정우근)의 아동수당 사전신청률이 접수 3주 만에 80%를 넘어섰다.

교월동은 지난날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신청을 접수한 결과, 대상 아동 236명 중 190여명이 신청해 사전신청률이 80%를 넘어섰으며 아동수당의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아동수당은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사전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분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출생아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은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교월동은 지속적으로 미 신청가구를 파악하여 아동수당 지급이 시작되는 9월까지 전체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선전화 및 문자 등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계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의 부모가 신체적으로 불편하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맞춤형복지사레팀과 함께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신청률 100%를 목표로 대상 가구 모두가 서비스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정우근 교월동장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빠짐없이 아동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 통장님들의 홍보를 부탁드리며, 행정에서는 미 신청가구에 지속적인 홍보로 아동수당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라"고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소방서 “여름철 말벌 주의하세요”

8~9월 활동 가장 왕성

김제소방서(서장 윤병현)는 말벌의 왕성한 활동시기와 휴가철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 말벌에 주의해야하며 스스로 해결하기 보단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말벌은 8~9월에 활동이 가장 왕성하며 매년 개체수 급증으로 지난해에는 전라북도 유형별 구조활동 분석결과 벌집제거 출동이 8,763건(27.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였다.

특히 야외활동이 많고 폭염에 집에서도 문을 열어 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벌들에 노출될 위험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말벌에 쏘였을 때 일반적 증상은 대개 가렵고 부풀어 오름, 통증 정도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개인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에 의한 쇼크(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생명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말벌은 꿀벌과 달리 여러 번 공격이 가능하며 강한 독성이 있어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말벌집이 높은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처리하려다 낙상으로 인한 2차사고 우려까지 있어 꼭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

진안고원 JINAN GOGWON